

A STUDY ON THE PLANNING AND DESIGN FOR RURAL COMMUNITIES

Ryu, Eung kyo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 Bug University

차 례

1. 서 론
2. 농촌 취락구조개선의 현황
3. 농촌 취락구조개선의 문제점
4. 농촌 취락계획의 방향 정립
5. 취락 집촌화의 모델 설정
6. 결 론

1. 서 론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농촌 근대화 정책과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7년의 성과로 1976년 이전까지는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지붕개량, 진입로 및 안길확장, 하수구설치 등 일차 기초환경의 정비를 마침으로써 營農의 기계화나 문화주택 복지시설의 확충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농촌 취락의 구조개선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정부에서는 느끼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事業의 필요성을 첫째, 고도의 경제성장과 새마을사업의 성과로 경지정리, 전기 등 농업생산 기반이 마무리 되어가고 영농의 기계화가 촉진케 되었고 둘째, 도시지역의 인구밀도 대책의 일환으로 都農간의 격차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새마을운동에 헌신 참여한 농촌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새마을운동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농가의 소득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어 불편 없는 의식생활에 부합되는 문화주택 수요가 절실한 바 도시지역에서 향유되는 문화주택, 보건위생, 복지시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 두고 농촌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필요성에서 영농의 기계화가 촉진케 되어 취락 구조개선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점을 감안하여 협동과 기업영농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계획적 취락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農村住宅의 구조개선이나 마을 안길확장 등의 소극적 취락구조개선에 불과했고, 적극적인 취락의 개선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都農간의 격차없는 생활환경조성으로 복지시설 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으나 고속도로와 철도선의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의 개량신축에 총력을 쏟아왔고 지금도 이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을뿐 總論的이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미시적이며 즉흥적인 현실 미봉책으로서의 계획에 그치고 충분히 건축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설계자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점에 대한 관계당국의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全北道의 金堤郡을 택하여 이미 농경지의 정리가 되어 있으나 새마을사업에 의한 농촌주택의 개량이라던가 취락의 구조개선이 본격적으로 향해 지지 아니한 扶梁面을 선정하여 앞으로의 농촌취락구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농촌 聚落構造개선의 現況

(1) 농촌 취락규모 현황

우리나라의 自然部落 수는 '80년말 현재 64,390개에 행정구역상의 洞과

리의 수가 34,892개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매 洞, 里에 약 2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의 동을 제외하면 3~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法定洞리는 1,675개 里로 자연부락 6,436을 고려하면 1개 法定里에 자연부락 수는 약 4개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를 13개군으로 나누면 평균 495부락이 됨을 알 수 있다.

전북의 郡 전체 가구수가 315,776호인 점을 감안할 때 1개 군당 평균 24,290호로 1개 자연부락 호수는 49호가 되어 약 50호 규모로 되어 있다.

農家 호수만으로 고려하면 225,980호로 평균 17,383호가 되어 1개 자연부락당 농가호수는 35호가 되었다.

자연부락 내의 호수별 분포를 보면 全北의 경우에 있어서 30호 미만이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51~100호 규모로 48.2%이다. 30~100호까지는 82%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재의 자연부락은 평균 40~60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규모를 감안할 때 농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集村化를 통한 취락의 재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농촌 聚落構造개선 실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취락구조개선사업을 76년에 10개 마을(227棟) 77년에 247개 마을(5,265棟) 78년에 822개 마을(18,234棟) 79년에 1,023개 마을(15,904棟) 80년에 645개 마을(8,120棟) 81년에 200개 마을(2,685棟)을 개선하여 총 2,947개 마을에 50,434棟의 주택을 개선했다. 여기에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취락구조 개선사업실적

구 분	실적(마을)	사업비(백만원)
계	200	4,000
경 기	30	600
강 원	20	400
충 북	16	320
충 남	24	480
전 북	18	360
전 남	30	600
경 북	30	600
경 남	26	520
제 주	6	120

표 1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40 억원의 투자를 통해서 200개 마을의 취락구조개선을 시도했고 전북은 그 중에서 18개 마을에 3억 6천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3) 추진방법과 대상마을 선정

내무부 지침을 보면 첫째,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의 능력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무리없이 추진하고 둘째, 주택개량과 병행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되 재개발 등 낭비가 없도록 마을 여건과 장래전망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하며 셋째, 마을 내 주택개량 대상棟數는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를 고려해서 개량주택이 空家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水害常習地, 山沙汰위험지 또는 低地帶에 위치한 마을과 水没地區 工團 조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취락의 移築이 필요한 지역이며, 고속도로, 철도 등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營農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全北의 80년말의 농촌주택개량 路線別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변 4개 마을, 全州와 群山간 도로인 번영로변 13개 마을, 南原線 6개 마을, 金淸線 4개 마을, 철도변 4개 마을, 관광사적지 2개 마을 国道邊 23개 마을, 기타 7개 마을로 모두 63개 마을을 路邊위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수립절차

지역여건과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마다 특색있게 가꾸어 適地適性의 改善類型과 改善指標를 설

정하고, 문화복지농촌에 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마을의 장기 발전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인구·생산유통·기계영농·소득신장 추세 등을 감안,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마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관계당국은 제시하고 있다.

가. 마을계획수립

1) 시장·군수 및 읍·면장과 마을 지도자는 전문기술기관 등과 約定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마을 住民總意로 계획안을 확정한다.

2)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마을의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 住民同意書를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군의 종합검토

1) 시·군 促進協會에 回附, 토지별 특성개발 타당성,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다.

2) 現地測量 및 마을 改善計劃圖를 작성한다.

3) 마을별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道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다. 道の 계획보완확정

토지이용계획의 보완(토지의 입지별 기능 및 적합성 검토)과 마을 개선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농촌 취락구조개선의 문제점

(1) 계획수립상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의 수립은 마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관계 전문인의 자문을 받도록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있어서 約定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공무원과 지도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전시효과 위주의 계획이었지 관계 전문인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기본계획에 앞서서 面單位計劃과 都單位計劃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합적 계획이 결여되어 해당 부락 자체만을 가지고 미시적으로 立案하였기 때문에 부락 상호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희박하게 되어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2) 대상마을 선정상의 문제점

군단위의 계획 속에서 면단위 계획으로 내려감으로써 적정한 마을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변과 철도변은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새마을 취락구조개선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계몽적 측면에서는 다소 큰 파급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都市型住宅의 건립이라는 외형적 화려함과 농민 자신들의 부채만을 안겨주었을뿐, 보다 근본적인 협동농업과 생활의 질의 변화를 부여하는데는 너무나도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취락설계상의 문제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対象마을 선정부터가 중요한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마을 전체의 方向性이 차를 타고 바라보기 좋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곳이 허다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平地로 밀어 格子型 도로를 만들어 버렸으며,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의 제고를 가져올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취락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나 農路가 미비하여 農作業은 물론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農家垆地와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그 규모도 다양함으로 이용율이 낮고 비합리적이다.

또한 주거생활 부분과 생산작업 부분의 混在, 상·하수도, 배수처리 시설의 不備, 공원·녹지·운동·오락 시설의 不備 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4. 농촌 취락계획의 방향정립

(1) 마을자체의 소규모 계획에서 탈피하고 군에서는 군단위의 취락계획을 수립하여 單位마을 現況圖와 부락간의 거리를 圖示化한 후, 상호 유기적인 연합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순서를 정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지금까지는 전시효과와 농민계몽에 치중하여 도로변과 철도변 위주로 선정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하여 전체적이고 總合的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 最適立地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3) 취락의 적정규모와 배치패턴을 地帶別로 연구한 학계와 기술 전문가

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취락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확립과 이에 따른 財政的 지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4) 格子型 공간구조와 획일적인 공간구조로, 농촌의 전통적인 道路패턴을 무시한 계획에서 탈피, 앞으로는 多核空間構造의 패턴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통일 속에 변화와 조화를 부여하는 계획을 해야 한다. 즉 주택배치의 형태는 통일하더라도 단위주택 평면의 규모에서 변화를 주고 외관에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6) 모든 주택의 배치는 그 지역의 기상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시도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외형적인 배치패턴상 方位를 도외시키고 동남향 이외의 방향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7) 규격화는 저렴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획일화에서 오는 몰개성을 노출시킴으로 사전에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8) 단위주택 상호간의 계획은 분산보다는 결합을 위주로 해야 한다.

(9) 취락의 중심은 마을회관도 좋지만 휴식공간이나 역사성이 있는 건물, 오랜 수명의 당산나무 등을 중심으로 부담없이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0) 탁아소나 유치원을 둘 수 있도록 취락의 규모를 확대하고 協業農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1) 自然地形을 절토하거나 파괴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며, 진입로는 될수록 짧아야 한다. 그리고 간선도로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12) 平野部에서 취락의 북서쪽이나 북쪽·동북쪽은 방풍림을 조성하여 背山臨水의 전통적 취락배치 思想과 부합하도록 하여 아늑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13) 취락의 형성은 5戶~10戶가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위로 하여 50戶가 기본단위가 되는 부락으로 하고, 50戶가 4~6개 모여서 중심을 형성하는 200戶~300戶 규모로 계획하되, 될 수 있는 한 부락의 戶數規

模를 集村化하는 방향으로 계획, 토지이용의 高度化를 기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고시키며 기계화와 協業化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14) 현 단계에서는 5戶~10戶 단위의 공동축사를 사용케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마을 전체의 共同畜舍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한다.

(15) 담장의 설계에서는 그 높이를 낮게 처리하고 사이 사이에 自然樹를 식재하되 유실수를 심도록 한다.

(16) 어린이 놀이터는 인공적 요소를 가급적 피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17) 부락에 따라서는 協業化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을 설치하게 되어 주택의 대지는 그리 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협업화가 되고 공동작업장이 생겨서 뜰을 작업장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그 뜰은 채소를 심거나 유실수를 심어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100~150坪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단위부락은 인근 소부락을 통합 집합하여 유치원을 겸한 국민학교 저학년교, 진료소, 상점, 도서실, 집회소, 소공원, 공동목욕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단위의 시설이 설치가능한 규모라야 하며 부락을 집단화하여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를 주거용지, 도로용지, 생활시설용지, 생산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등으로 용도 구분하고 시설을 集中配置함으로써 밀도를 높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설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5. 聚落集村化의 모델 設定

(1) 聚落集村化의 立論的 見解

가. 우리나라의 자연부락은 그 입지의 결정에 있어서 비록 평야지대 마을이라 할지라도 背山臨水의 전통적 풍수설과 음양설의 영향을 받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道路의 形態上的 配置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 전개되며 葉脈狀의 규칙성이 높은 도로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과 적극적 공간(Positive Space)의 반복 교차는 농촌의 아늑한 공간구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다. 土地利用의 특징을 보면 개인농가는 그들의 울타리 안에 개인용 남새밭(채소밭)이 있는데 이러한 生産空間이 주택과의 최단거리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생활공간 이용상의 특징을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연부락 내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구심적 행사와 그 행사를 위한 部落祭는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신할만한 현대적 개념의 시설이나 행사를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줄 필요가 있다.

마. 住居配置의 형태는 내부 마을 안길이나 타원형을 이루면서 2戶가 서로 병렬로 놓이도록 계획되고 사립문(대문)은 서로 마주보지 않게 되었으며 부락 내의 요소요소에는 社交空間이 형성되어 4~6戶 정도의 어울림이 일어나는 核空間이 있다.

이들 有核空間이 여러군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多核空間體系를 갖고 주거의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핵공간은 Positive Space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2) 選定地域의 現況分析(扶梁面)

(3) 集村化 目標

가. 集村化 規模

우선 현재의 농촌이 보다 살기 좋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協同營農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0% 이상이 50戶 미만으로 되어 있는 자연부락을 될 수 있는 한 집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의 규모면에서는 합리적인 협동영농의 규모를 생각해야 될 것이며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검토되어야 하고 地方定住 體系上에서 나타난 합리적인 생활권의 규모를 고려하여 최적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 종원교수는 그의 연구 논문에서 대규모지역에서의 취락의 단계적 구성은 단위부락 50戶, 중심부락(300~

〈表-2〉扶梁面 現況分析

항 목	区 分	計	항 목	区 分	計	항 목	区 分	計	
마을 분포	면적	19.99 km ²		田	0.05ha	문화 시설	공 중	9 대	
	里数	7 個		1人当耕地面積			라디오	1,646 대	
	自然部落数	31 個		合 計	0.34ha		전 축	128 "	
	班数	51 個		畓	0.33 "		녹음기	87 "	
人口 및 農家 戶数	家口数	1,206人(100%)	生(미)産(공)量	田	0.01 "	耕作規模別 農家數 및 面積	規模別 合計	999(戶)	1,652(ha)
	農家	999戶(82.8)		재배面積	1,597ha		1단보미만	50 "	1 "
	非農家	207 "(17.2)		단 수	495kg		1-3 단보	92 "	27 "
	人口	5,683人(100)		수확량	7,905M/T		3-5 단보	154 "	67 "
	男	2,809 "(49.4)		水利施設	總面積	1,652.0ha	5-1 정보	173 "	170 "
	女	2,874 "(50.6)		農機 械 保 有	計	238 戶	1-1.5 정보	177 "	265 "
	人口密度	284人/km ²			쟁 기	96 대	1.5-2 정보	119 "	229 "
農家 区 分	純農家	921戶(92%)	동력경운기		139 "	2-3 정보	152 "	420 "	
	兼業農家	78 "(8%)	트랙타	3 "	3 정보이상	82 "	473 "		
	農家人口	4,771人	트 렉	1 대	학급수	29명			
	純農家人口	4,381 "	승용차	2 "	벽 량	18 "			
	兼業人口	390 "	우마차	22 "	벽 제	11 "			
	戶当平均農家人口	4.8 "	리어카	285 "	교직원수	34 "			
	家口当平均人口	4.7 "	자전거	880 "	벽 량	21 "			
	土地 利用 現 況	合 計	1,999ha	오토바이	25 "	벽 제	13 "		
		田	55 "	有畜農家	498	재학생수	1,165 "(남599명)		
		畓	1,597 "	無畜農家	552	벽 량	749 "(남385")		
林野		16 "	畜牛頭數	420	벽 제	416 "(남214")			
塋地		55 "	上 水 道	급수구역	호 수	215 호			
學校用地		3 "		급수현황	인 구	1,510 人			
道路		54 "		호 수	179 호				
其他		219ha(하천, 제방, 삼중지구거, 유지, 묘지, 교회용지)	전 화 가 입	計	362 대				
戶当 및 1人当耕地面積		合 計	1,652ha(100%)	주 택	317 "				
		畓	1,597 "(74)	업 무	45 "				
	田	55 "(26)							
	戶当耕地面積								
	合 計	1.65 ha							
	畓	1.60 "							

600戶), 住区中心地(2,000戶), 地域中心地(10,000戶)로 발전단계를 잡고 성장하는 가능성을 따라 단계적 구성안을 제안한 바 있다.

紙面관계상 여기에서는 모두 검토한 내용의 論文을 알릴 수 없으나 本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計劃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表-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촌화의 最適規模를 200~300戶로 보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몇가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集村化의 패턴

본 계획에서 대중지역으로 선정한 扶梁面은 농경지정리가 이미 完了된

〈表-3〉集落配置計劃

區分	취락계층	기본단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기본집락	연합집락	복합집락	종합집락	거대집락
戶 數		30~50	200~300	3,000~5,000	160,000	800,000
人 口		150~250	1,000~1,500	15,000~25,000	800,000	4,000,000

곳으로 평지로 되어 있고 직선적인 도로에 포장된 주요도로를 감안하여 농경지를 향하여 直交하는 직선도로 패턴을 그대로 도입하되 중앙을 공동 시설 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5~10戶가 공동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아늑한 공동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직선적인 도로패턴을 도입 하면서 상호간에 교차를 이루는 多核

空間 체계를 갖도록 하고, 사면으로 성장하면서 주거기능이 충족되도록 하며 50戶 규모의 副心空間을 부여하여 協同農業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다.

다. 集村化 實施

扶梁面의 현재의 가구수는 1,206戶에 인구 5,683人인데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2001년까지 집촌화

〈表-4〉 期間別 集村化 計劃表

단위 人口：人 家口：戶

期 間 別 区 分	1982		1991		2001		비 고
	人 口	家 口	人 口	家 口	人 口	家 口	
合 計	5,683	1,206	4,842	1,137	4,025	1,000	
I. 신령집촌화(대장, 제월, 신성)	1,150	265	800(220)	200(50)	800	200	() 내는
II. 금화집촌화(대성, 금신, 하방, 상방, 신신, 용골)	1,320	275	800(264)	200(60)	800	200	미집촌화의
III. 포교집촌화(상방, 신신, 복촌)	590	117	457	104	805	200	人口 및 家
IV. 신정집촌화(주촌, 견포, 후군, 전군, 고잔, 후포, 사정)	1,450	296	1,245	283	810	200	口數
V. 서두집촌화(초승, 선인, 신양)	1,173	253	1,056	240	810	200	

계획을 시도하여 매 부락당 200戶 규모에 800人 내외의 인구를 갖는 총가 구 1,000戶에 4,025명의 인구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국적으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離農現狀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에 의하여 자녀의 수도 줄어들게 되어 그와 같은 감소 현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상은 감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 이농현상을 사전에 막고 영농의 완전 과학화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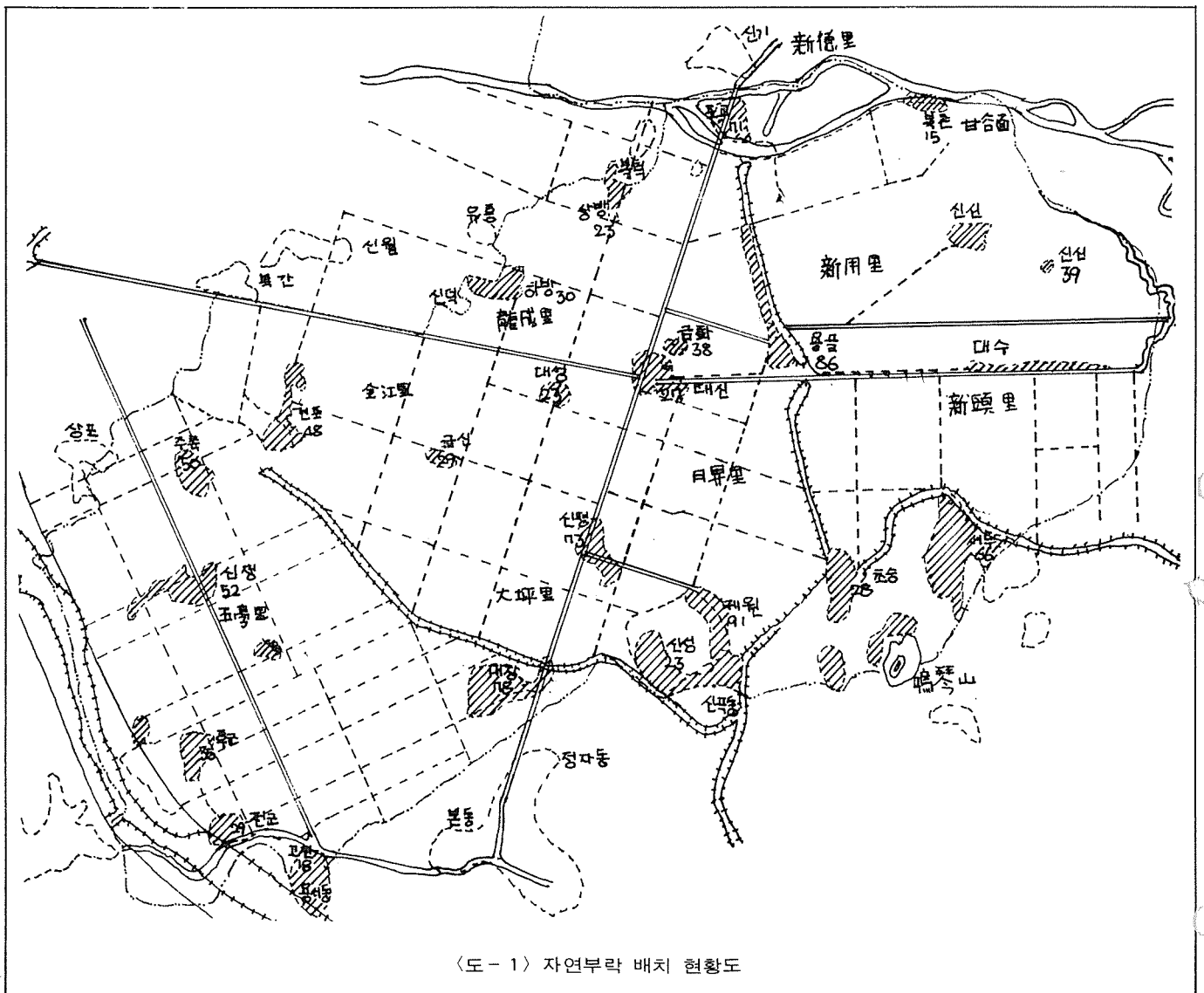
계획이 되도록 부유하고 문화적인 現想農村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시안으로서 집촌화의 실시를 당국에 제안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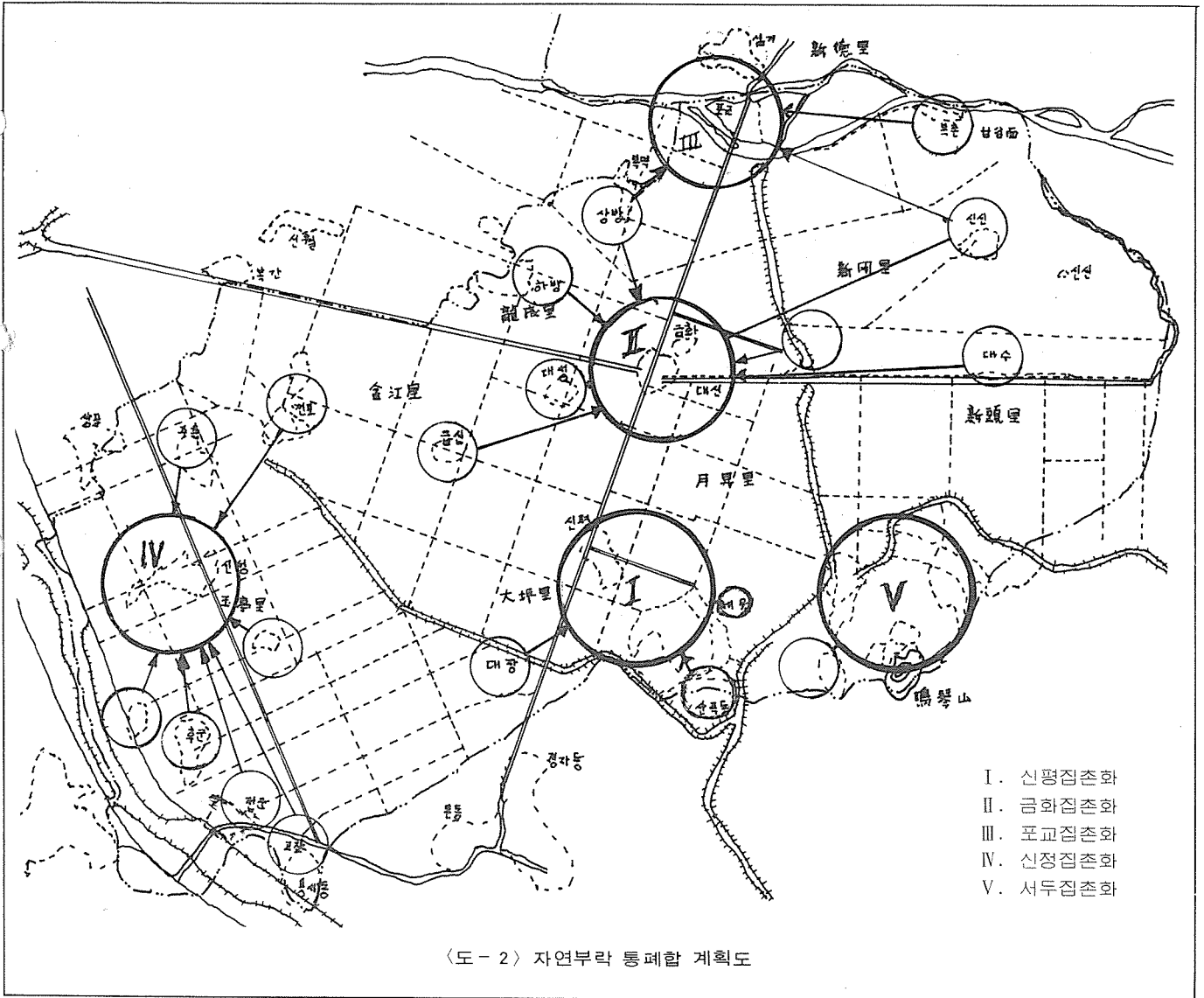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막대한 투자비를 취락구조개선에 투입하였는데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40억 규모로서 全北은 그 중에 약 4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200戶 단위의 집촌화 계획에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중 20%의 농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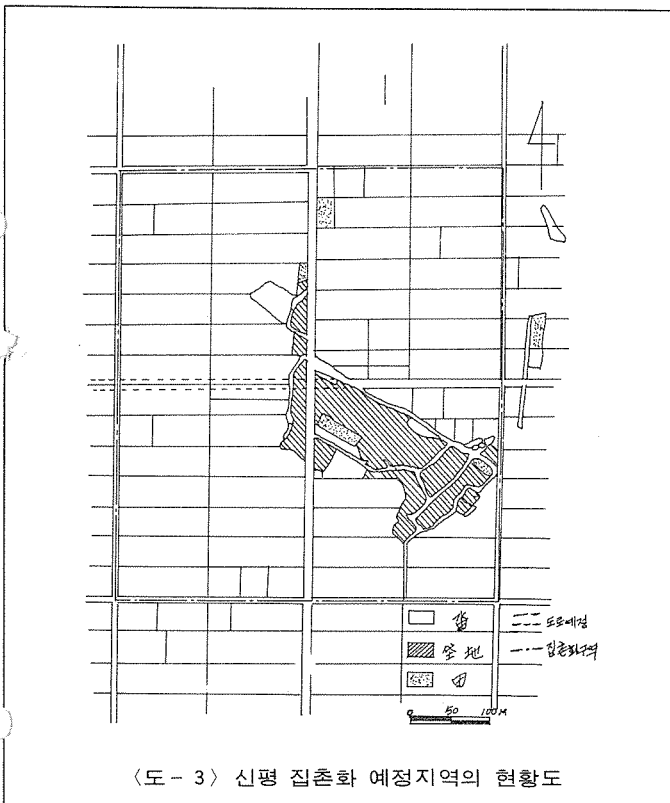
담을 제외한 16억원에 해당되는 투자를 연간 4억원씩 1984년부터 투입한다면 1991년까지는 적어도 2개소의 集村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된다면 신령집촌화와 금화집촌화가 이룩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나머지 세군데의 집촌화가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가 뒤따른다면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시범 聚落의 패턴이 되어 커다란 관심을 받으므로써 획기적인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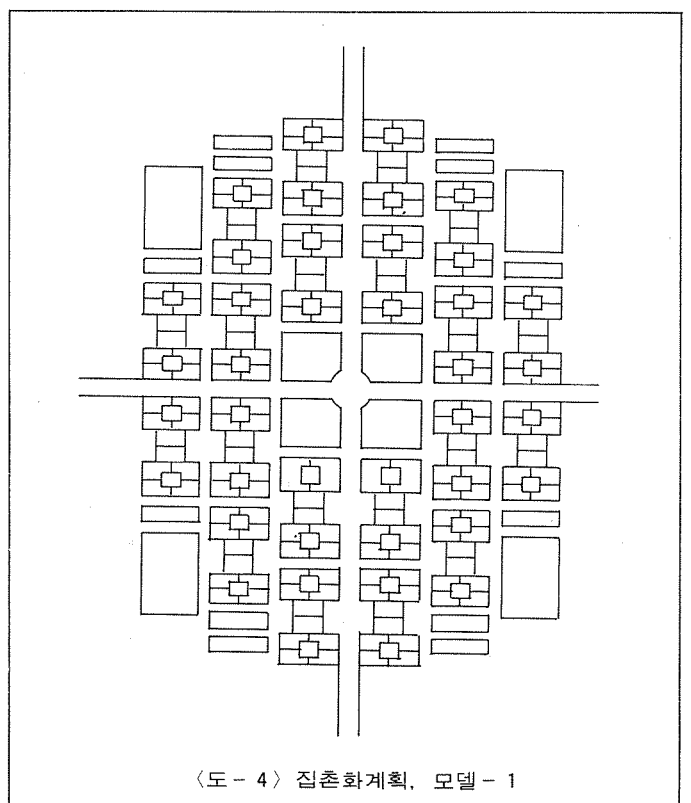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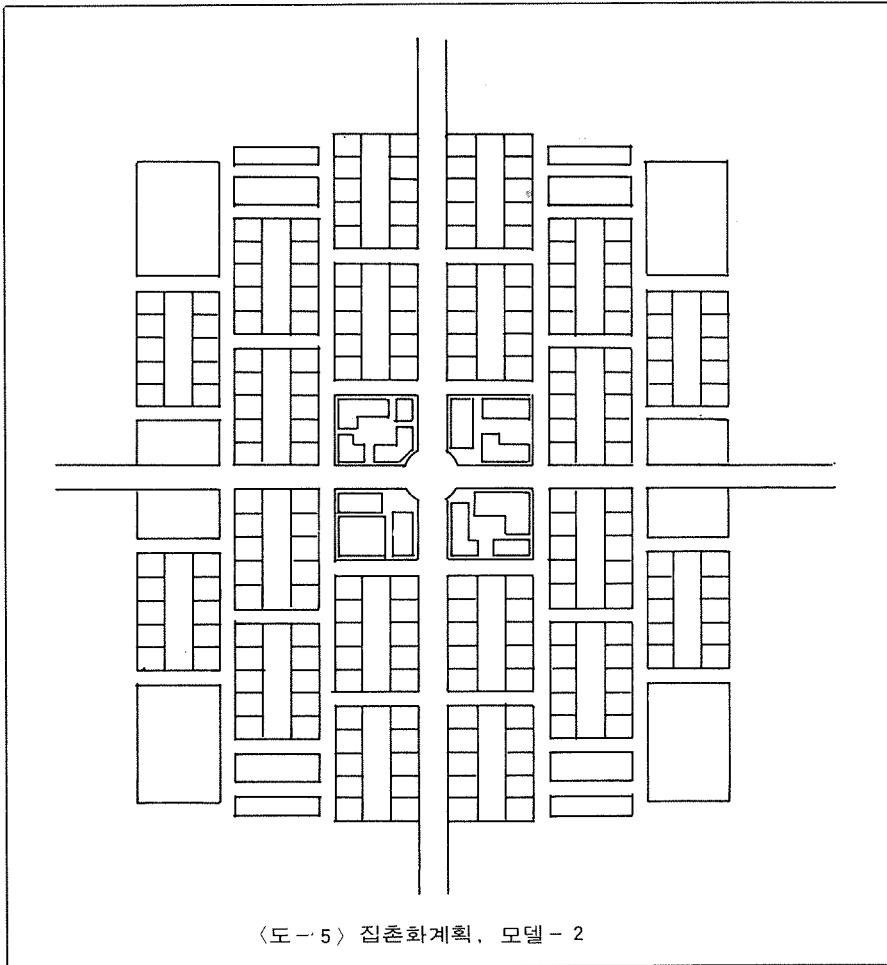
〈도-2〉 자연부락 통폐합 계획도



〈도-3〉 신평 집촌화 예정지역의 현황도



〈도-4〉 집촌화계획, 모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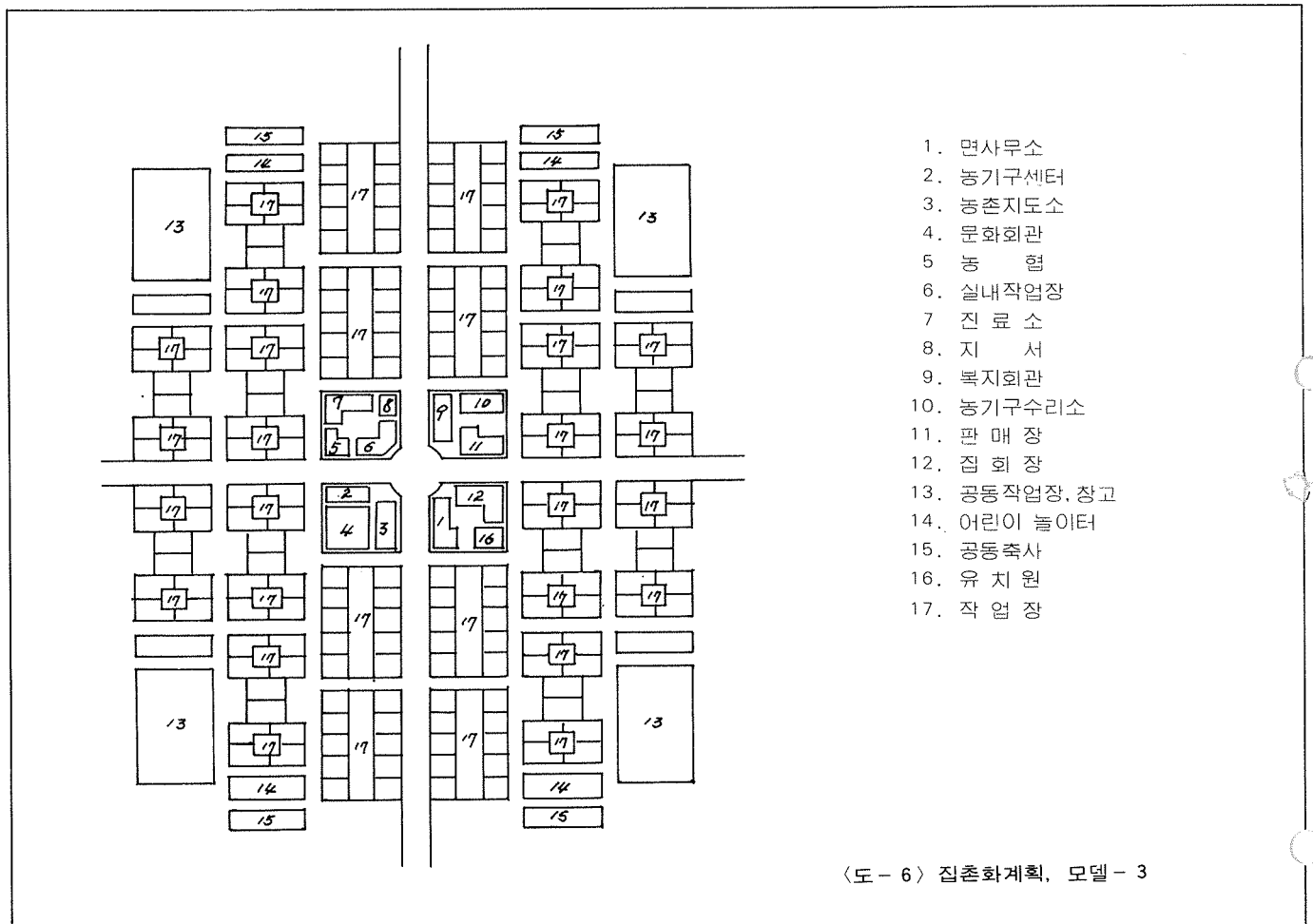
〈圖-1〉과 〈圖-2〉에서는 扶梁面의 자연부락배치현황과 통폐합계획도를 圖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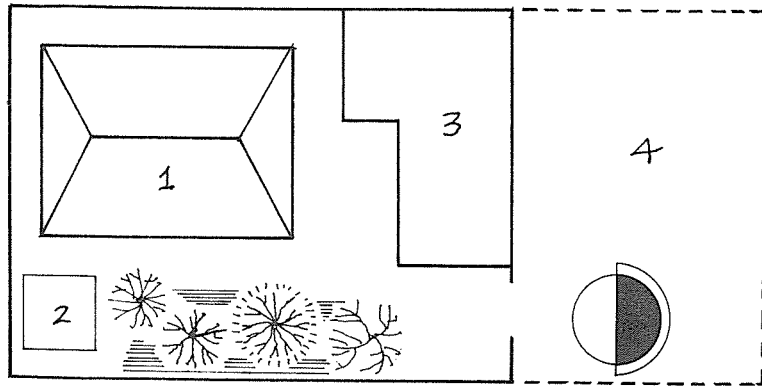
그리고 새로운 집촌화를 계획하였던 현재의 면소재지인 신평集村化를 계획하기 위한 현황도를 〈圖-3〉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 集村化 모델

집촌화의 중앙에는 공공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지역으로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농기구센터, 농촌지도소, 문화회관, 농협 실내작업장, 진료소, 지서, 복지회관, 농기구 수리소, 판매장, 유치원 등이 있으며 5戶 혹은 10戶 단위의 협동농업이 가능한 패턴으로 모두 남향으로 주택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동 작업장과 창고를 경작지가 가까운 부락의 외곽에 두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공동축사, 그리고 합동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장을 사이에 두고 주택이 배치되도록 하였다.

〈圖-4〉, 〈圖-5〉, 〈圖-6〉에서는 각각 모델-1, 모델-2, 모델-3의 집촌화 시안을 제시하고 〈圖-7〉에서는 단위 주거배치안을 제시하였으나 모두 기본적인 도로의 패턴이





가족구성 : 부부, 자녀 2인
 대 지 : 136 평
 본 대지 91 평
 부속대지 45 평
 건 평 : 39 평
 본 건물 23 평
 부속건물 16 평
 1. 본 건물
 2. 장 독 대
 3. 부속건물
 4. 작 업 장

〈도 - 7〉 단위주택배치 계획안

라든가 공공시설의 배치위치는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으나 단위농가의 배치패턴을 다르게 하여 통일 속에 변화를 추구하면서 한국적인 농촌의 유형에 접근하도록 시도하여 보았다.

6. 結 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聚落構造改善事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건축인들은 모두 綜合計劃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취락구조가 형성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문자그대로 개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마을 현황의 조사에서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상적인 농촌건설에 건축인은 물론이요, 관계 전문분야의 모든 기술인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관계 당국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1人11部落當 200萬원의 설계 용역비가 제상되지 아니하여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이 점을 정부에서는 고려하여 예산에 反映하여야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이 완전하게 반영되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획전반에 걸쳐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 하나의 시안으로서 김제군 부량면 일대의 집촌화계획을 시도하여 집촌화의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보다 깊이있게 오랜 시간동안 연구하지 못한채 내놓게 되어 앞으로는 더욱 보완 수정하면서 취락입지별로 地帶別計劃까지 병행하여 여러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 | | |
|-----------------------------------------------------------------|------------------------------------------------------|------------------------------------------------------------------------|
| 1) 內務部(1981) :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事業推進指針 | 案「住宅」12권 1호 | 宅設計 및 聚落構造改善에 관한 研究「建築」第22卷 第84号 |
| 2) 田耕培(1974) : 農村새마을 計劃의 現況과 問題點「建築」第18卷 第59號 (7~8) | 5) 張明洙·柳應教(1973) : 農村聚落의 最適規模 計劃에 관한 研究「建築」第17卷 第52号 | 9) 內務部(1971) : 農村聚落構造改善과 住宅改良 方案研究 |
| 3) 田耕培(1978) : 農村聚落의 條件變化와 問題點에서 본 計劃의 基本方針「建築」第22卷, 第84号(9-10) | 6) 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1) : 農村中心圈開發의 理論과 指針 | 10) 朴稔珪(1981) : 새마을 事業으로 이룬 農村建築의 現況과 새 農村建築의 計劃에 관한 研究「工學研究」第11輯(全北大) |
| 4) 朱鍾元(1977) : 農村聚落構造改善方 | 7) 柳應教(1980) : 韓國農村聚落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工學研究」第10輯(全北大) | 11) 기타 : 各種 통계연보 |
| | 8) 李廷德(1978) : 서울 近郊農村標準住 | |